



핵 오염수 방류는 일본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명백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해 일어난 사고였다.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피해 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고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시민들에게 '관계자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그 약속을 파기하려 한다.

어업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들이 핵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도 도쿄전력은 이미 핵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육상 시설, 해저 터널, 해저방출구 설치 공사를 추진했으며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그들을 대변하는 연구자들이 언론을 통해 핵 오염수가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연일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현의 어업인들은 복잡한 심경이다. 이처럼 정부가 방류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그 안전성을 문제 삼으면 또다시 심각한 생계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처럼 생계를 위해 타협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처지를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거짓되고 무책임한 태도에 많은 일본 시민들이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어업인을 비롯한 후쿠시마 주민들, 일본 전역의 시민들이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 조금씩 반대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 지지를 보내자.

하세가와 사오리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 청년, 한-일 통번역사)



5월 16일 도쿄 시내 긴자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대 "오염수를 바다로 흘리지 말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월 12일 국회 앞 2차 전국행동에 이어 6월 24일 서울 시청 앞 3차 전국행동을 예고했다.

6월 13일에는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 제주도민대회가 열렸다.

부산여성단체연합과 부산학부모연대 등 35개 단체가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 오염수 방류를 막을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6월 23일에는 울산에서, 7월 8일에는 부산에서 각각 집회가 예정돼 있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퇴진 집회도 6월 17일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요구

정부의 거짓말과 '괴담' 수사 협박이 통하지 않고 있다

하며 일본 대사관 인근에서 행진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6월 17일 인천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인천 규탄 대회'를 연다.

향의 행동이 늘어나고 천일염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등 불안 징후가 확산되자 정부도 마냥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5일부터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한 일일브리핑을 시작했다. '괴담'으로 일축하며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인정

6월 15일 첫 일일브리핑에서 정부는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다고 인정했다. 반면 다핵종제거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관해서는 "일본 측은 ...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했다" 하고 말해 사실상 자신들이 확인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또, 주일 한국 대사는 일본 지지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오염수 방류 안전성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장관 조승환은 6월 14일 기자 인터뷰에서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

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런던협약은 핵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이다.

일부 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자신감이 높지 않고 반대 압력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운동이 더 커져야 한다.

<노동자연대> 정규호에는

부패한 우익 이동관, 민주당의 불안정, 홍콩 항쟁 - 역사적 배경과 의미,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제안,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등 유익하고 따끈따끈한 기사들이 있습니다.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베팅” 발언 소동 미·중 갈등 격화가 한국 정치권 내 갈등을 격화시키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그치지 않고 있다.

6월 8일 싱하이밍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윤석열의 외교 노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싱하이밍 발언에 윤석열 정부와 우파는 크게 반발했다. 윤석열은 싱하이밍이 구한말 조선 내정에 간섭했던 청나라 위안스카이[원세개] 같다고 했다.

이는 싱하이밍을 만난 이재명도 공격하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중화 사대주의”에 빠졌다고 비난했다.

한반도 주변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갈등이 한국 지배계급 내의 갈등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다툼은 앞으로 더 격화될 것이다.

물론 싱하이밍은 중국 외교관들의 ‘전랑 외교’, 즉 거침없는 언행으로 중국의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싱하이밍은 위안스카이가 아니다. 오늘날 한·중 관계는 140년 전처럼 중국이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우파들은 이런 부적절한 비유를 들며 한미일 동맹 강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하려 한다.

싱 대사 발언의 배경에는 미·중 갈등이 최근에 더 첨예해진 가운데 한·중 간에도 긴장이 쌓여 온 상황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거듭 모순에 봉착하면서도 미국 쪽에 실제로 “베팅”하는 것을 선택해 왔다.

지난 4월 윤석열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

경에 반대”한다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의 이런 선택은 중국의 반발을 샀다. 인터뷰 후 중국 외교부는 자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를 전달하며 윤석열의 친미·친일 외교 정책을 견제해 왔다.

지난달 22일 한·중 외교 회담에서 중국은 ‘4불가’ 방침을 윤석열 정부에 전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한국이 친미·친일 일본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가면 협력 불가 등이 그 골자였다.

후시진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전 편집장은 한국이 “제2의 호주”가 됐다고 했다. 2020년 미국과 손잡고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자며 중국과 격한 갈등을 겪은 호주에 지금의 한국을 빗댄 것이다.

싱하이밍 대사 발언을 둘러싼 한·중 긴장은 시간이 지나면 일시 봉합될 수도 있다. 이 소동 전에 윤석열 정부는 시진핑의 연내 방한을 제안했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다.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에, 윤석열 정부도 나름 줄타기를 도모한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점증하고 한국이 제국주의적인 그 갈등의 무대 중 하나라는 점은 변함없을 것이다. 윤석열이 미국 쪽으로 꾸준히 “베팅”한 것은 한·중 긴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세계적 갈등도 부추기는 것이다. 그로 인한 위험 부담은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의 외교로는 미·중 갈등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10년대 초 이후 한국 지배자들은 한미동맹이 주는 경제적·안보적 이익과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 사이에서 고심하게 됐다.

싱하이밍-이재명 만남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그들이 이 딜레마를 풀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표는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며 윤석열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대중국 외교를 손놓아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 지배자들의 어려움은 미·중 간 적대대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는 데서 비롯한다. 두 강대국이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상황은 현 세계 시스템 안에서 온전히 풀기 불가능한 문제다.

올해 초 중국의 “정찰 풍선”이 자아낸 긴장은 미·중 관계의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 준다. 반도체 전쟁도 양측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 지배자들의 딜레마는 정치인들의 외교적 수완으로는 온전히 헤쳐 나가기 불가능한 문제다. 거대한 반제국주의 대중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12강 중국 트로츠키주의의 역사

일시 | 6월 28일(수) 오후 8시

발제 | 이정규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참가신청 bit.ly/0628-meeting

▶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